



Address : 874-0836 베피시 히가시쇼엔 8-3 전화 0977-23-1072 E-mail : takezaiku@takezaikudensankaikan.jp



Access

- 【버스】 ●JR베피역 서쪽 출구에서 2번(칸나와선), 5번(APU선), 7번(베피리하비리선), 41번(사과리선)을 타고 '히카리노 소노' 에서 하차. 걸어서 10분
- JR베피역 동쪽 출구 또는 키타하마 버스터미널에서 25번 칸나와선을 타고 '다케자이쿠 덴토산교카이칸' 하차.
- 【택시】 ●JR베피역 서쪽 출구에서 10분
- 전화 0977-23-1072
- FAX 0977-23-1085
- 영업시간 오전8시~오후5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을 경우는 화요일), 연말연시(12월29일~1월3일)
- 입장료 고등학생이상 390엔(세금포함) 초, 중학생 130엔(세금포함)
- 단체할인 고등학생이상 1인당 330엔(총액의 10엔 미만은 버림) (20명 이상) 초, 중학생 1인당 91엔(총액의 10엔 미만은 버림)
- 사전예약 단체입장 및 체험학습을 하실 분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체험학습

천연소재로 만든 수제 제품이 주목을 받는 지금, 짧은 시간으로 죽세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카이나미(작은 꽃 바구니)

체험요금 : 2,000엔
소요시간 : 60분정도
대상 : 중학생이상



대나무 방울

체험요금 : 500엔
소요시간 : 40분 정도
대상자 : 초등학교 3,4학년 이상

※ 체험학습은 1주일 전까지에 예약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약상황 등에 따라서 접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나무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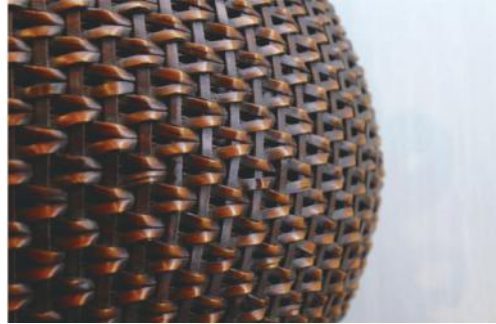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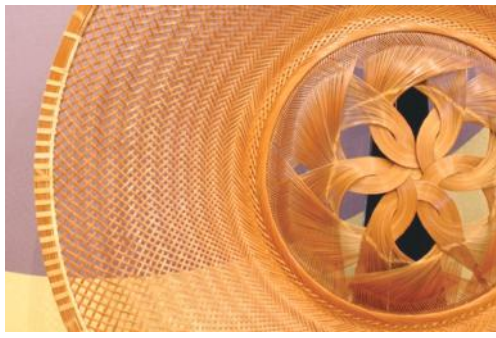


베피죽세공의 후계자 확보, 육성이나 전통기술 전승 등을 목적으로 1주일 2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많은 연수생들이 배우고 있으며 일반 구경자도 명인 강사의 지도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에는 그 성과를 발표하는 전시회를 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벚푸죽세공의 유래

5세기쯤에 제12대 천황 케이코우(景行)가 규슈의 역적을 토벌해서 돌아오는 길에 벚푸를 찾아왔을 때, 중자가 질이 좋은 대나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식기를 보관하는 바구니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벚푸죽세공의 기원이었다고도 합니다. 17세기에는 벚푸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온천 요양 체재객이 사용하는 부엌용품(밥바구니, 된장거르기, 쌀소쿠리) 등이 토산물로 팔리게 되자 그와 함께 죽세공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역산업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에는 죽공예 근대화를 위한 기술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현 오이타현립 오이타 공업고등학교의 전신)가 창립되어 지금의 훌륭한 대나무 제품의 생산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계승되는 기술

벚푸 죽세공은 오이타현이 생산량 전국1위를 자랑하는 질 좋은 왕대를 주원료로 용도에 따라서 솥대, 오죽 등을 쓰고 있습니다. 짜기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 기법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살려 뛰어난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 생활용품에서 미술공예품까지 폭 넓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죽세공을 기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조형성을 높인 작가도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존재가 '인간국보' 쇼노 쇼운사이(生野祥雲齋)입니다. 1979년에는 '전통적공예품' 지정을 받아 대나무 자원의 유효활용이나 전통기술의 보호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1

전시실은 '역사' '소재' '기법' '생활과 살림' '미래' 등의 코너를 설치하여 대나무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공' 코너에서는 명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뛰어난 기법의 작품을 많이 전시하며, 그 외에 최근의 생활양식에 맞는 참신한 인테리어 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철 소장품고에서는 전시를 안 하는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2

1년에 몇차례에 걸쳐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회수기념전

관내 안내도



연수실

제1연수실에서는 벚푸죽세공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제작자의 기술연수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는 '대나무 교실'이나 '살롱공방'으로서 이용되며 그 외에도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연수실에서 디자인이나 다른 공예분야 등 각종 연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뮤지엄샵

의, 식, 주를 장식해줄 다양한 죽제품을 판매합니다.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고 대나무 숲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타야키 도자기의 커피컵과 소서

